



가을걷이

글 조보희 기자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954

논에서 벃단을 나르는 어린 여학생들

[국가기록원 제공]



제주도 산방산이 보이는 논에서 소달구지로 벃단을 옮기는 농부들



나락(벼)을 베다 논바닥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는 농부들

1975

[국가기록원 제공]

가을 농번기를 맞아 어린 여학생들이 벃단을 나르고 제주도 논에서 소달구지로 벃단을 옮기는 장면에서 흘러간 세월이 느껴집니다. 농부들이 논바닥에 모여앉아 점심을 먹고 탈곡기로 탈곡하는 장면도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농촌 들녘의 가을걷이 모습도 시나브로 변해 왔습니다. 그 변화를 모아봤습니다.



1984

낫으로 베 벃를 탈곡기로 탈곡하는 장면. 지금은 콤바인이 두 가지 일을 대신한다.

1999



강릉의 한 농가에서 고추를 처마 밑에 매달아 말리고 있다.



1988

대구사과로 유명했던 경산 과수원에서 사과 수확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은난화로 사과 주산지도 부상했다.

전북 군산의 벃 베기 모습

2016



2020



전남 해남에서 김장배추를 수확하고 있다.